

## 8.15해방기 북한 문예운동사 연구

### -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1946.3)에서 6.25전쟁 전(1950.6)까지 -

金成洙\*

#### 〈차례〉

1. 머리말 : 신문 자료를 통한 북한 초기 문예운동 연구
2. 제1차 북조선예술가대회(1946.3)와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
3. 제2차 북조선문학예술인대회(1946.10)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4. 제3차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체 대회(1949.2)와 전전(戰前) 문예운동
5. 마무리 : 해방기(1945-50) 북한 문예운동사의 연구방향

#### [국문초록]

이 글은 8.15해방기(1945~50) 북한 최초의 전국적 문예조직 결성과 활동을 문예운동사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체문학 중심의 '조선문학사' 정전을 탈정전화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사를 실사구시로 복원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최초의 전국적 문예조직인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1946.3)부터 6.25전쟁 직전(1950.6)까지 북한 초기 문예운동을 조직론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연구방법은 『정로』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문예기사와 『문화전선』 등의 문헌 고찰과 미디어 독법이다. 제1차 북조선예술가대회(1946.3)를 통한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과 조직 개편, 제2차 북조선문학예술인대회(1946.10)를 통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의 확대 개편 및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3차 대회(1949.2), 6.25전쟁 직전 남조선 문학예술인과의 연대 제안(1950.6)까지 정리한다. 이 시기 문예조직과 창작성과를 신문 잡지의 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정리하되, 문예운동사를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추출하여 공시적 분석을 기한다. 해방기 '미디어-문학장(media-literature field)'을 통한 논의 성과로써 6.25전쟁과 전후

\*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교수

복구시기(1950-56) 문예운동사까지 가능하다.

[주제어] 북한문학, 문예운동사, 미디어 독법, 『정로』, 『로동신문』, 『문화전선』, 북조선예술총련맹,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 1. 머리말: 신문 자료를 통한 해방기 북한 문예조직운동 연구

이 글은 8.15해방기(1945.8-1950.6) 북한 문예조직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로동신문』(『정로』 포함) 등 신문의 미디어콘텐츠를 통해 새롭게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최초의 문예조직 결성과 조직 개편 등 문예운동을 연구할 경우 신문 기사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항일혁명문학예술 전동의 주체문학사’라는 현금의 정전을 해체하고 북한 초기의 문학 실상을 재조명한다. 연구방법으로 당시 『정로』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신문기사와 『문화전선』을 통해 북한 최초의 전국 문예조직인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1946.3)부터 6.25전쟁 발발(1950.6)까지 해방기 문예운동을 실사구시로 재구성한다. 북한 초기 문예운동을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공시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학계의 선행 연구를 보면, 『조선문학사』 정전처럼 김일성 교사와 수령형상문학 중심으로 해방기 문학사가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다.<sup>1)</sup> 당대 신문기사를 활용한 북한 문예조직과 문예운동의 실체를 밝힌 선행 연구는 별로 없다. 이를테면 북한 정전에는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 우리가 관심을 둔 월북 작가의 해방부터 전전기 문학활동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북한판 문학사, 문학전집, 문학교과서에 문학사적 실상은 기초 사료조차 삭제, 외면되거나 왜곡, 훼손되었다. 심지어 김정일이 10세 때 지었다는 동요가 6.25전쟁기 문학사의 맨 앞에 길게 서술되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sup>2)</sup>

1) 김성수, 「북한 ‘조선문학사’의 역사」, 『민족문학사연구』 80, 민족문학사학회, 2022. 12; 「6.25전쟁기 북한 문학사 정전 비판과 재구성 모색」, 『통일과담론』 3-1,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 2024. 5. 참조.

2) 북한판 문학사 정전에는 10세 소년 김정일의 4줄짜리 2절 동요 「조국의 품」에 대한 해설과 문학사

우리 학계는 『정로』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문예기사를 다 보기 어렵는데다 자료를 찾아도 상태가 나빠 해독이 어려웠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 초기의 선전선동체제와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북조선예술총련맹 조직활동을 다루거나 서울의 조선문학가동맹과 대립하는 평양의 조직으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의미화하는 선행 연구 성과가 있었다. 북한 초기 문예운동에 끼친 소련의 영향과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간략한 역사적 변천(1946-53)도 소개되었다.<sup>4)</sup> 최근 논의로는 방대한 자료의 정교한 해석에 힘입어 북조선예술총련맹 출범(1946.3)의 주체로 김창만과 안막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연맹의 문예정책노선으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문예론을 원용한 문화론,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론의 조선화’가 재조명되었다.<sup>5)</sup>

필자는 이들 성과에 힘입어 『정로』(1945.11~46.8), 『로동신문』(1946.9~)의 문예기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sup>6)</sup>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 우리 학계의 주요 관심사인 월북 작가의 해방~전쟁기 재북활동과 중군문학, 작품 소개 등은 후속작업을 기약하고 ‘문예(조직)운동사’부터 학계에 보고하고 있다.<sup>7)</sup>

---

적 의의를 장장 6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김선려 리근실 정명옥, 『조선문학사(11) 해방후편(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39-44쪽. 이전 문학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리동원, 『조선문학사 3(1945~5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12. 참조.

3) 국한문 혼용의 우중서 텍스트를 한글 가로쓰기로 정리한 자료집도 오달자가 적지 않다.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200권, 코리아데이터센터, 2018~2024.

4) 박창희, 「해방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체제와 군중문화사업(1945-1950)」, 성균관대 박사 논문, 2021; 배개화,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대립과 그 원인, 1945~1953」, 『한국현대문학연구』 44, 한국현대문학회, 2014; 유입하, 「북한 초기문학과 ‘소련’이라는 참조점 - 조소문화 교류, 즈다노비즘, 번역된 냉전논리」,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김성수,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역사적 변천(1946-53)」, 『통일정책연구』 33-1, 통일연구원, 2024.6.

5) 남원진, 「북조선예술총련맹의 탄생과 그 이면」, 『통일인문학』 100,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24.12, 273~314쪽.

6)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200권(코리아데이터센터, 2018~2024)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다.

7) 줄고,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역사적 변천」 심사평에서, 해방기-전쟁기 문예운동사의 시계 열적 논의를 한다면서 『옹향』 필화 사건' 재론 외에 1948~50년의 해방기 논의가 상당 부분 빠진 점을 지적받았다. 6.25전쟁기 문예운동사는 논문(『6.25전쟁기 북한 문예운동사 연구』 『한국학연구』 7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4.5)이 먼저 나왔으나, 8.15해방기 문예운동사 논문은 제심 통보를 받았기에 수정 보완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북한 초기 문예조직운동의 변천과 쟁점을 정리한다. 『정로』 『로동신문』 등의 신문기사와 『문화전선』 자료를 통해 제1차 북조선예술가대회를 통한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1946.3.25)부터 제2차 북조선문학예술인 대회(1946.10.13)를 통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북문예총’) 결성, 제3차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대회(1949.2.27)와 6.25전쟁 직전(1950.6)까지의 문예조직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석, 평가한다.

## 2. 제1차 북조선예술가대회(1946.3)와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

### 1) 연맹의 이념과 노선

북한 최초의 전국적 문예조직은 ‘북조선예술총련맹’이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은 1946년 3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북조선 예술가대회’에서 결성되었다. 북조선 예술가대회는 종래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를 세워 문학예술 종사자의 전국적 조직 통일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소집되었다. 인민민주주의 개혁이 시행되는 당시 현실을 담은 ‘산 예술을 창조하며 인민대중 특히 ‘근로대중을 위한 예술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리기영의 개회사에 담긴 조직 결성의 명분이었다.<sup>8)</sup>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식은 선언, 강령, 규약 가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이 조직 결성의 명분으로 내건 이념 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이다. 조직의 이념을 표방한 ‘결성 선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을 통하여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방향으로 인민을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민의 절대다수인 근로계급의 예술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민예술 민족예술을 수립하여 예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노선을 전취하자고 하였다. 둘째, 민주주의예술의 정당

8) 「북조선예술가 단결, 인민대중의 문화 수립 -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대회」, 『정로』 1946.3.28.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제2권, 코리아데이터센터, 2018, 543쪽).

한 노선을 맞춰 예술운동의 저수지이자 보고인 인민의 예술 충동과 예술 생산력을 계발할 운동을 인민 속에서 전개하자고 하였다. 셋째, 토지개혁 성공으로 일제하의 봉건잔재가 사라지면 그 가운데서 자라난 비민족적 노예적 비근대적 관념형태도 청소될 것이다. 이에 민족성 언어 풍속 습관 윤리 사상을 근로계급의 진보적 민주주의예술 즉, “건전한 인민예술의 과학적 유풍론적 내용에 의하여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민생활의 쇄신과 민족성 개조가 예술운동의 근본 과제이며 이것 없이는 국제 민주주의 예술문화의 일환으로서의 민족예술을 가질 수 없다.

끝으로 북조선예술총련맹은 북조선의 특수성에 의한 잠정적인 조직이니 앞으로 도래할 남북 전체 예술운동 통일조직의 동력이 될 선행 조직임을 부연한다고 하였다. 이는 남북이 분단된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남북 문예의 통일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조선예술총련맹이 북문예총으로 조직을 확대(1946.10)한 후에 5년간 ‘북’문예총 명칭을 고수하였다. 훗날 한창 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평양에서 남북의 통합 문예조직을 결성할 때 비로소 ‘북’자를 뺀 통합 문예총을 결성하게 된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의 ‘강령’은 다음 6개항이다 :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의 수립, 조선예술운동의 전국적 통일조직의 축성, 일제적 봉건적 민족반역적 파쇼적 반민주주의적 예술의 세력과 관념의 소탕, 인민대중의 문화적 창조적 예술적 계발을 위한 계몽운동의 전개, 민족문화유산의 비판과 계승, 민족예술문화와 소련을 비롯한 국제문화와의 교류.<sup>9)</sup>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결정서도 채택되었다.<sup>10)</sup> 내용은 민족예술 수립, 민족문화유산 계승, 세계 예술문화와의 교류, 대중 계몽운동, 반동 예술문화외의 투쟁, 인민대중의 예술 창조력 계발, 예술 민중화와 민중의 예술화, 지방 조직 확대, 신인 육성 씨클 확대 등이다. 여기서 ‘예술 민중화와 민중의 예술화’는 카프 이래 진보적 문예운동가의 표현인 문

9) 선언과 강령, 규약 전문은 『문화전선』 창간호에 있다. 「1946 북조선예술총련맹 규약」, 『문화전선』 1집, 1946.7.

10) 「북조선예술총련맹에서 개진한 보고자의 보고에 관한 결정서」, 『정로』 1946.3.28. 한설야가 보고자이다.

학예술을 대중의 것으로 창작하고 향유하라는 ‘대중화’ 담론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연맹의 조직과 성원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 건설이라는 이념과 노선을 이끌어갈 문예 조직의 주역과 구성원은 누구였을까. 훗날의 회고에 의하면, 민주주의적 민족문학의 이념 하에 일반인에게 민주주의 노선과 새로운 문학의 정치성 등 이론적 뒷받침과 교양에 앞장선 이데올로기는 김창만, 안막, 안함광이었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의 결성 준비 및 사업 추진을 지도한 주체는 당 간부 김창만과 안막, 리기영, 한설야, 박팔양, 안함광, 한재덕, 김사량이었다. 창작 지침은 ‘조쏘친선, 토지개혁을 위시한 민주개혁, 김일성 찬양’ 등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주요 작가로는 리기영, 한설야, 김사량, 리북명, 남궁만, 시인으로는 박팔양, 박세영, 리찬, 이정구, 조기천, 전동혁, 김조규, 민병균, 안룡만, 백인준 등이 꼽혔다.<sup>11)</sup>

연맹 결성식에는 외부 인사도 다수 참석하였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당시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국가 진영이 늘 그렇듯이 문학예술계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참석한 것은 레닌식의 당문학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출발점부터 있었다는 뜻이다. 결성식에는 신민당 대표 최창익, 공산당 대표 김창만, 평남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주연, 조선신문사 대표 전성화의 축사가 있었고, 연맹 명의로 김일성에 대한 감사장과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채택되었다.<sup>12)</sup>

대회는 다음날인 3월 26일 속개되었다. 민족문화의 문제(안함광), 민족예술문화 건설의 민주주의노선(안막), 예술의 보급과 제고의 문제(리기영),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에 대하여(박팔양), 국제문화의 교류에 대하여(한설

11) 안함광, 「북조선문학예술총사업의 회고와 전망」, 『로동신문』 1947.8.7~8.8.

12) 북조선예술총련맹,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 북조선예술총련맹의 감사장」, 『정료』 1946.3.30; 북조선예술총련맹,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대회서 소미공동위원회에 보내는 메세지」, 『정료』 1946.3.30.

야)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민족문화’ ‘민족예술’을 ‘계급문화’보다 앞세웠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당시 북한 문학예술계가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동시대 동유럽의 여타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런 분위기는 학술·문화계 전반이 유사했다.<sup>13)</sup>

북조선예술총련맹 규약은 총칙, 가맹단체, 조직, 부서 편성, 재정, 부칙 등 6장 26조로 되어 있는데, 조직체계가 주목할 만하다. 총칙에 따르면 연맹은 평양에 본부를 두며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의 수립’ 등 6개항의 강령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체계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원칙 아래, 북조선대회(중앙위원회) - 도총회(도위원회) - 시군읍 총회(시군읍위원회) 순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연맹 최고 의결 기구 북조선 대회는 각도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 초대 집행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리기영, 윤규섭(윤세평), 한설야, 김사량, 한재덕, 안막, 한태천, 변효식, 전재경, 안함광, 최연해, 홍철, 김연성, 남궁만, 박팔양(이상 중앙위원회), 최명익, 박종식(평남도위원회), 김람인, 박완식(평북도위원회), 주인규, 한식(함남도위원회), 현경준, 김복원(함북도위원회), 정률성, 서순구(황해도위원회), 최인준, 공성희(강원도위원회).<sup>14)</sup>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회 결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밑에 예술위원회, 서기장을 두었다. 중앙집행위원으로는 명예위원장 리기영, 위원장 한설야, 부위원장 박팔양 안막, 제1서기장 안함광, 제2서기장 한재덕이 선임되었다. 실무진으로 서기국(안함광 서기장), 총무국(경리국장 한재덕 겸직), 출판국(국장 박팔양 겸직), 조직국(국장 안함광 겸직), 국제문화국(국장 김사량)이 배치되었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각국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상무위원으로는 명예위원장 리기영, 위원장 한설야, 부위원장 박팔

13) 「북조선예술가대회에서 민족문화의 문제 등 발표」, 『정로』 1946.3.28.

14) 원문에는 괄호 속에 각도 지명만 나오지만 문맥상 이들이 각도연맹을 대표하는 집행위원이다.

양 안막, 제1서기장 안함광, 제2서기장 한재덕, 김사량 국장이 선임되었다, 예술위원회는 리기영, 한설야, 박팔양, 안막, 안함광, 한재덕, 김사량이 소속되었다.

이제 북예총 결성의 문예운동사적 의의를 생각해 보자. “진정한 인민 문화 수립을 위하여 북조선 전체 문화예술인들을 한 기발 아래”<sup>15)</sup> 결집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다만 연맹 출범 당시 북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문예인의 절대다수가 태부족한 탓에 구성원 역할이 여럿 겹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카프 출신 작가 위주인데다 평양 등 이북 출신이면서 이북이 주 활동무대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게다가 서기국은 조직 실무를, 예술위원회는 문예 장르별 현안을 담당했는데, 두 조직의 기능이 겹치기도 하였다. 기실 서기국의 조직 우선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 현장의 창작 지원 같은 예술 실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한 것은 신인 육성 사업이었다. 전문 전업 문학자 예술가가 아닌 ‘균중문화’(아마추어 문학예술의 북한식 명칭) 출신 신인을 키우기 위하여 ‘로농통신원’이나 ‘문예씨클원’ 조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씨클조직 테제」에 따르면, 문예씨클은 대중의 창의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기성 조직의 맹원이 동호자를 모아 조직하고 단체나 맹원이 없는 데는 맹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직해야 하였다.<sup>16)</sup> ‘로농통신원’이나 ‘문예씨클원’ 조직을 통한 균중문화사업과 신인 육성은 북한 문예 조직이 출범부터 남한에 비해 전문 작가, 전업 예술인이 모자랐기 때문에 시급하게 외형 확장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문예단체의 조직 문제를 앞세워 서둔 나머지 그들의 예술적 역량에 대한 배려와 안목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창작방법론으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 북한 최초의 문예조직이 정책노선으로 앞세운 안막의 입론은

15) 북조선문학예술총련맹 결성 1주년 기념대회(1947.3.24.)에서 안막 부위원장이 “인민과 더불어 호흡하며, 인민과 더불어 싸우는 진정한 인민 문화 수립을 위하여 북조선 전체 문화예술인들을 한 기발 아래 묶어세워 민주 새 조선 건설의 우렁찬 전진에 유력하고도 찬란한 기여”를 했다고 하였다. 「새 조선민족 문화의 꽃 우리의 힘으로 피우자」, 『로동신문』 1947.3.27.

16) 「북조선예술총련맹의 씨클조직 테제」, 『정로』 1946.3.30.

저 카프 시대의 창작방법 논쟁에서 유래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토착화였다. 그는 고리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관통하는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이고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문화라는 정식화<sup>17)</sup>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 문화예술의 건설을 제창하였다<sup>18)</sup>. 이는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문예론을 원용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론의 조선화’<sup>19)</sup> 즉 외래 이론의 토착화로 볼 수 있다.

### 3. 제2차 북조선문학예술인대회(1946. 10)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 1) 연맹의 1차 조직 개편

북조선 예술총련맹은 1946년 3월 출범부터 10월의 북문예총으로의 확대 개편까지 조직 문제로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연맹은 우선 과제로 문예씨클의 대중적 확산을 통해 소속 맹원 수를 확대하고 창작을 독려하였다. 194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문학예술운동’이란 명목으로 북조선 예술총련맹 맹원(전업 전문 작가와 예술가)과 문학예술 씨클원(아마추어 군중작가 등 군중 문화운동 소속원)을 합한 수치는 8천3백여 명이다. 기타 시군 지역 씨클원까지 더하면 문예 종사자가 만여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하였다.<sup>20)</sup> 문제는 전문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문학예술을 애호하는 아마추어, 딜레탕트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예술 창작 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하였다. 그들을 전문 전업 작가 예술가로 교육할 과제가 대두되었다.

북조선 예술총련맹은 출범 녀 달 만인 7월 17일 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하

17) 이. 웨. 쓰딸린, 『이. 웨. 쓰딸린 저작집』 7권, 외국문서적출판사, 1956, 182~183쪽.

18) 안막, 「조선문학과 예술의 기본임무」, 『문화전선』 1집, 1946. 7. 6쪽.

19) 남원진, 「북조선예술총련맹의 탄생과 그 이면」, 『통일인문학』 100, 304-305쪽.

20) 리찬, 「문학예술운동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로동신문』 1946. 12. 7.

여 조직 개편과 규약 개정을 하였다. 긴급확대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예술위원회를 해체하고 장르별 전문부서를 두었다. 예술위는 연맹 결성 때 예술장르 각 부문의 종합부서 구실을 하려고 구성되었다. 하지만 북예총 활동의 무게중심이 서기국 위주인데다 예술위는 하위 실무자가 없어 실질적인 창작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북예총 산하의 예술위원회를 해체하고 이와 별도로 5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산하 행정기관인 교육부 내에 '북조선예술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직업동맹인 예총과 별도의 정부기관인 행정조직을 만든 것이다. 정부기구이기에 위원장은 교육국장 장종식이 맡았다. 부위원장 리기영, 서기장은 문화부장, 위원 중 작가 예술인은 최명익, 박팔양, 허정숙, 안함광 등이다.<sup>21)</sup>

한편 북예총 조직의 또다른 현안은 예총 국제문화부와 조쏘문화협회 간의 위상과 기능이 중첩되는 문제였다. 가령 5월 28일에 북예총 주최로 '북조선예술가 연락회의'를 별도로 열기도 하였다. 기존 조직이 있는데도 연락회의라는 근색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북예총과 조쏘문화협회 간의 현안 조정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회의 자체가 평양시예술연맹 대표 한재덕의 사회로 조쏘문화협회 위원장 리기영의 개회사를 하는 식이었다.<sup>22)</sup> 결국 조쏘문화협회의 위세가 컸기 때문인지 7월에 예총 국제문화국(국장 김사량)을 폐지하고 조직선전부를 추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직 혼선의 책임을 물어 안함광이 서기장 직에서 물러나고 리찬이 새롭게 선출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의 총무국(국장 한재덕), 출판국(국장 박팔양), 조직국(국장 안함광), 국제문화국(국장 김사량)과 예술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부서 단위의 실무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집행부장 리찬, 출판부장 박세영, 조직선전부장 한재덕, 문화부장 김사량, 연극부장 신고송, 음악부장 김동진, 미술부장 정관철, 영화부장 신두희, 사진부장 리문빈이 뽑혔다. 편집위원으로 각 예술장르별 부장과 리기영 한설야 안택 리동규 안함광이 선임되었다.<sup>23)</sup>

21) 「민족문화 발전의 추진력 우리 정부기관 '예술위원회」, 『평양민보』 1946.5.21.

22) 「북조선예술가들 연락회의를 개최」, 『정로』 1946.6.1.

23) 「예총 조직을 강화 -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민주조선』 1946.7.19.

북조선 예술총련맹의 7월 17일자 조직 개편 결과 재배정된 구성원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집행위원회 - 명예위원장 리기영, 위원장 한설야, 부위원장 안막 박팔양, 서기국 서기장 리찬, 총무부장 리찬, 출판부장 박세영, 조직선전부장 한재덕
- 전문 각부 - 문학부장 김사량, 연극부장 신고송, 음악부장 김동진, 미술부장 정관철, 사진부장 리문빈, 영화부 신두희
- 편집위원회 - 리기영 한설야 안막 박팔양 한효 안함광 김사량 박세영 한재덕 리찬 신고송 박석정 리동규 김동진 정관철 신두희 리문빈<sup>24)</sup>

변화의 핵심은 서기국 서기장을 안함광에서 리찬으로 교체하고 총무부 출판부 조직선전부 등의 행정조직과 별도로 각 장르별로 문학부 연극부 음악부 미술부 사진부 영화부를 신설한 것이다. 이런 혼선이 과연 안함광의 리더십 때문에 초래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민주주의 민족문학예술의 통일전선'이란 명분 하에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의 정강정책에 끼워맞춘 문예활동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조직 규모를 성급하게 외연 확장하려고 예술적으로 미성숙한 아마추어 신인을 마구 받아들인 사실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체제, 그것도 소련군정 하의 '립시' 정권에서 비전업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문예의 상대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성급하게 문예인 숫자를 늘리려고 조직화를 강행했던 후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안함광 같은 기성의 전문 문학가, 전업 예술가들이 보기엔 예술 장르별 특성과 창작 기량에 대한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활동이 그리 탐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 책임자를 교체하고 예술장르부를 신설했던 것이다. 그러나 출범 닷 달 만의 조직 개편과 인사 단행에도 불구하고 문예 활동의 본질이

24) 「예술총련맹 조직 개편 진영 보강」, 『정로』 1946. 7. 23.

행정 중심의 실무 지도인지 창작 중심의 예술 지원인지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1946년 9월 25일 평남예술련맹 제1차 대표자대회가 열렸다. 북조선중앙인민위원회 문화부 윤묵, 조소문화협회 송영, 로동당 평남도당 문화부 김수진 공동 명의로, “예술문화인들은 작품을 쓰는 데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민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을 맺어 인민 속으로 들어가 인민대중을 옳은 방향으로 꺾쇼 타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란 성명이 채택되었다.<sup>25)</sup> 대회에서 문학예술이 인민 속으로 들어가 인민대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상급 기관의 권고가 있었다. 아마도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를 대표하는 권력 중심에 있던 김일성의 교시와 관련된다<sup>26)</sup>

대표자대회를 통해 기존의 연맹은 조금은 무기력해졌다. 문예활동의 중심이 행정 중심의 지도인지 창작 중심의 지원인지 교토 정리하는 것보다, 1946년 8월 30일 출범한 북조선노동당(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통합)의 요구에 문예 종사자가 일치단결하여 복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예조직 자체의 내부 문제 해결보다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기동력 있게 신속하게 적극 대처하라는 당의 지시가 우위였다.

## 2) 북조선문학예술인대회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의 전면 개편

1946년 9월 30일 문학예술 차원을 넘어선 사회 문화 전반의 보다 강력한 통일조직을 만들자는 취지의 상위조직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가칭 ‘북조선 문화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북조선문화인 전체대회’가 개최되었다.<sup>27)</sup> ‘제1차 북조선문화인 전체대회 중앙준비위원회’의 계획에 의하면, 모든 문화

25) 「평남예술련맹 제1차 대표자대회」, 『로동신문』 1946. 9. 28. 『로동신문』은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과 합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1946년 8월 30일)를 계기로 조선신민당 기관지 『전진』과 북로당 기관지 『정로』를 합쳐 1946년 9월 1일 창간되었다. 『정로』는 1945년 11월 1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로 창간되었다.

26) 김일성, 「민주건설의 현재단계와 문화인의 임무 - 제2차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9월 28일)」, 『김일성전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225~228쪽.

27) 「북조선 문화운동의 강유력한 추진 조직, 북조선문화단체협의회 구성요자 북조선문화인 전체대회 개최」, 『로동신문』 1946. 10. 3.

인, 과학자, 기술자, 교육가, 학자, 문학자, 예술가, 저술인, 의학자, 체육인을 총망라한 문화단체를 만들려 하였다.<sup>28)</sup>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칭하고 종래의 단일체를 장르별로 재편하여 북조선문학동맹, 북조선연극동맹, 북조선미술동맹, 북조선음악동맹, 북조선영화동맹, 북조선무용동맹, 북조선사진동맹으로 구성하는 것이다.<sup>29)</sup>

북조선문화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북조선문화인 전체대회 개최에 앞서 문예조직 개편이 있었다.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로동신문사에서 각도 대표 97명과 문학자 예술인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북조선예술총련맹 전체 대회가 개최되었다.<sup>30)</sup> 대회는 평양예맹 위원장 한재덕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북예총 부위원장 박팔양의 개회사 후 의장단 한재덕, 안막, 안함광, 신고송, 한효, 윤규섭, 박팔양이 소개되었다. 김두봉(로동당 중앙위원장),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주영하(당 중앙위 부위원장), 한빈(김일성대학 부총장), 리청원(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대회는「신 정세와 민주주의 문학예술전선의 강화」(안막)에 대한 보고와 토론 후 결정서를 통과시켰다.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조직하고, 종래의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영화, 무용, 사진 등 각부를 동맹조직으로 승격 개편하고 독자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sup>31)</sup> 제2일차 회의에서는 각도별 사업보고와 예술장르별 보고가 있었다.<sup>32)</sup> 「남조선 문학예술운동」(한효), 「선거사업에 있어서의 문학자 예술

28) 가칭 북조선문화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중앙준비위원회는 로동신문사 5층(전화 3801번 구내 63번)에 사무소를 두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광진 김사량 김응상 김일선 김정도 김창만 리동화 리동규 리장무 리인원 리청원 류문화 박극영 박무 박석정 박승옥 박완무 박팔양 신고송 안막 안함광 윤기연 윤세평 전재경 정숙영 조영식 최창석 태성수 한설야 한재덕 한형기 한효 현옥운. 사무국 - 한재덕(국장) 김병록 박세영 윤목 정청산 한봉식 (가나다 순)

29) 문예조직 외의 타 분야 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다: 종래의 공업기술련맹 건축동맹 농업연구회 등을 북조선과학기술총련맹으로 통합, 종래의 보건련맹을 확충하여 의학동맹 조직, 교원단으로 구성된 교육문화직업동맹과 별도로 교육 관련 문화인을 결집한 교육동맹 신설, 신문 잡지 방송의 기자 보도원을 망라한 보도동맹, 저술가 문필가 평론가를 모은 저술가동맹 조직, 기존의 조소문화협회, 체육동맹 강화 등.

30) 「북조선예총대회 개편 재조직 결정」, 『로동신문』 1946.10.15.

31) 「제2차 북조선예술총련맹 전체대회」, 『로동신문』 1946.10.15.

32) 「현 정세에 대처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 북조선예총 전체대회 제2일의 토론」, 『로동신문』 1946.10.17.

인의 임무」(윤세평), 문학운동(안함광), 연극운동(신고송), 미술운동(우철선), 영화운동(신두희)의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함남의 한식, 평양의 송영 박팔양 신고송 김진락, 평북의 김우철, 함북의 주동화, 평북의 안기석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8.15해방 이후의 급격한 사회 발전 속에서 문학자 예술가들이 현실을 예술 작품으로 제대로 형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예 창작방법을 제대로 논의한 적도 없고 시 창작의 매너리즘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뒤이어 규약과 결정서를 통과시키고 다음과 같이 중앙위원회와 검사위원을 선거하였다.

- 중앙위원 - 한설야 리기영 리찬 김사랑 안막 안함광 최명익 한효 한재덕 리동규 송영 윤기정 박세영 김창만 신고송 라웅 장호 선우담 황현영 최연해 김동진 리면상 김태연 최승희 신두희 주인규 한식 현경준 안룡만 서순구 김우철 최인준 김조규 조중곤 윤규섭 리문빈 리복명 리소진.
- 중앙검열위원 - 박팔양 전재경 박석정 윤묵 김승구.

북조선 예술총련맹 전체 대회 결정서에서는 북조선 문학자 예술가는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문학자 예술가들을 원조하고 반동과 반민주주의적 문학예술과 투쟁하며, 인민 생활 기운대 뿌리박은 봉건 잔재와 일제 잔재를 소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를 위해 민족 간부 양성과 문맹퇴치 계몽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당면과제인 선거의 선전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라고 하였다. 또한 '직총 농련 민청 너맹'과 제휴하여 직장 농촌 어장 학교에서 문화씨클을 조직하여 활동하자고 하였다.<sup>33)</sup> 문학예술운동 내부 문제로 상업주의적 경향을 청산하고 소련 문학예술을 섭취하되, 민족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민족적 형식 완성에 노력하자고 하였다. 그를 위해 민주주의정신에 투철한 문학예술 이론과 창작방법론 확립에 노력하자고 하였다.

33) 「함북 예총이 학교 공장에 씨클 조직」, 『로동신문』 1946. 12. 21.

북조선예술총련맹 전체 대회를 통한 북조선문학예술총련맹 결성(10.13-14)에 이어, 다음날 과학 문학예술 교육 각 부문 종사자를 망라한 북조선 문화인 전체대회가 연이어 거행되었다. 1946년 10월 15~16일에 전날의 분야별 조직 개편 성과를 모아 상급 단체인 '북조선 문화인 전체대회'가 열렸다. 제1차 북조선 문화인 대표대회는 10월 15일 오전 11시부터 김일성대학 강당에서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재덕의 경과보고와 「민주경제 건설에 있어서의 문화인의 임무」에 대한 안막의 발제, 각 부문 대표의 토론이 전개되었다. 토론자인 리청원은 과학자 예술가의 활동이 인민대중을 위한 건설적 문화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예술인, 과학기술자의 지식을 대중화하여 인민 교양과 대중 계몽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가령 문화 예술인, 지식인은 11월 3일에 거행할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에 주력하자다<sup>34)</sup>는 제안이 나왔다.

대회에서 채택한 '문화인의 당면임무를 규정한 문화인대회 결정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문학자, 예술가 교육자 체육인 등 전 문화인은 노동자 농민과 동맹을 형성하고 조국과 근로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 복무한바 분야별로 큰 성과를 올렸다. 문예 분야만 해도 북조선 문학예술총련맹은 3천5백 명의 문학자와 3천 명의 연극인이 속한 77개 극단과 800여 음악인과 600여 미술가 등 1만 명 가까운 문학자 예술가를 결집시켰다. 조직 산하에 국립 중앙 및 도 단위 예술공작단, 국립교향악단, 각종 예술연구소 단체도 만들었다.

다만 외형적인 거대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조직 플랜과 화려한 담론에 비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였다.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자체 토론에서 언급되었듯이, 토지개혁의 성공으로 사회주의적 민

34) "13. 선거 승리를 위하여 총동원하며 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킬 것이다. (가) 문학자 예술가는 문학예술형식에 의하여 (시, 소설, 연극, 음악, 이동선전대) 직장, 광산, 농촌, 어장, 학교, 교회 등에서 광범한 해설사업을 전개할 것. (나) 과학자 기술자 의학자들은 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장소에서 선거운전사업을 전개할 것 (다) 교육자 기자 일반 문필가들은 강연 방송 출판물 등을 통하여 광범한 해설사업을 전개할 것. 「1946년 10월 16일 제1차 북조선문화인 전체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1946.10.25.

주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싶은 당 중앙의 의욕에 비해 문화 분야 전체가 현실에 뒤떨어져 당과 인민의 요구를 가지적으로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당연히 문학예술의 창작성고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문화 분야 조직의 통일성과 창작활동의 계획성이 부족하고 문화단체 간의 협력체제도 부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당의 조급증이다. 문학자 예술가에다 과학기술자를 더한 광범위한 문화인 지식인을 한꺼번에 조직화해서 그들의 사상적 기술적 수준을 단번에 제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1946년 9월 당시 현실을 무시한 무리수로 판단된다. 문화인들은 인민의 문화 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에 노력하며 간부 양성과 문맹퇴치에 헌신하고 선진 소련의 과학기술, 문화예술을 학습하라<sup>35)</sup>는 등등의 중앙집권적 지시가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실행되긴 어려웠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은 조직화를 밀어부쳤다. 나흘 동안 숨 가쁘게 강행된 제2차 북조선문학예술인대회와 제1차 북조선 문화인 전체대회를 통해 확대 조직된 북문예총과 북조선문화단체중앙협의회 결성의 후속조치로 문학자 예술가들은 공장과 농어촌, 탄광으로 대거 현지파견되었다.<sup>36)</sup> 생산현장의 노동체험을 면한 문학자 예술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인 다수는 건국사상동원운동에 동원되어 선동선전사업에 복무하도록 하였다.<sup>37)</sup>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예술문화 수립’을 명분으로 결성되어 조직의 확대 개편까지 야심차게 단행한 1946년의 문예운동이 『응향』 필화 사건(1946. 12. 20)으로 근간부터 흔들릴 위기를 맞았다. 북문예총을 중심으로 건국사상운동의 선전사업을 주도했던 평양 지도부가 산하기관인 조선문학동맹의 원산지부에서 나온 ‘반동적’ 성향의 서정시집을 사전에 검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응향』뿐만 아니라 『관서시인집』 『예원씨클』 수록 작품의 내용과 문인들의 성향이 그렇게 퇴폐적 비현실적 반동적이라면 왜 그

35) 위와 같은 글.

36) 「『문예총맹』 확대회의, 직장 농촌으로 문학예술인 심입」, 『로동신문』 1946. 11. 17.

37) 「문학예술총동맹 건국사상동원운동에 각 부문마다 총결기」, 『로동신문』 1946. 12. 10.; 「건국사상동원 결의」, 『로동신문』 1946. 12. 10.; 「건국사상총동원 전개를 지원할 작가 강연대가 각 지역으로 출발」, 『로동신문』 1946. 12. 18.

리 방치했느냐 하는 자기비판이 부족하지 않았나싶다.<sup>38)</sup>

『응향』 필화 사건'을 문예운동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품 주제나 내용도 문제지만 방대한 조직을 갖춘 중앙위 서기국과 장르별 동맹도 임무 방기를 한 것이 아닐까싶다. 창작 수준의 미숙을 감수하면서까지 평양의 서기국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민주집중제 원칙하에 아마추어까지 맹원수를 대폭 늘렸다. 새로운 신인을 찾으려 정작 지방의 신인, 청년 시인은 전혀 포용, 통제하지 못했으니 문제였다. 평양 지도부는 1946년 12월 20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원산문학동맹 편, 원산예술련맹 발행' 명의의 『응향』시집에 대한 비판과 관급조치, 책임자 처벌 등 조직 개편, 검열체계 강화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일사불란하게 단행하였다.<sup>39)</sup> 다만 지도부의 자기비판은 형식적이었다. 시집 "발간은 8월인데 우리 중앙엔 1부의 증정도 없이 우리는 이제야 이 사실을 알았다."<sup>40)</sup>는 책임회피 수준에 머물렀다. 평소 중앙집권적 조직 논리를 앞세워 작가들을 전국적으로 통제했던 지도부가 원산에서 8월에 나온 시집을 12월까지 몰랐다고 발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터이다. 당에서 강조한 레닌적 당문학론의 전국적 확산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증좌이다.

#### 4. 제3차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체 대회(1949.2)와 전전(戰前) 문예운동

##### 1) 북문예총의 민주개혁기(1946~48) 활동

1947년 8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 안함광은, 「북조선문학예술사업의 회고와 전망」에서 해방후 2년간의 문예운동을 정리하였다. 그에

38) 오태호, 「〈'응향' 결정서〉를 둘러싼 해방기 문단의 인식론적 차이 연구」, 『어문논집』 46, 어문학회, 2011; 김성수,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역사적 변천(1946~53)」, 『통일정책연구』 33-1, 통일연구원, 2024. 참조.

39) 자세한 경과와 서지, 논평은 김성수, 윗글 참조.

40) 「각 도 위원장 앞」, 『로동신문』 1946.12.24.

따르면, 1945,6년의 북한문학은 토지개혁 등 인민위원회 주도의 민주개혁을 그린 작품 다수가 일종의 ‘행사시’ 수준이라 추상적 표현에 머물렀다.<sup>41)</sup>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1946.3)부터 제2차 전체대회(1946.10)까지는 ‘조직의 시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조직 정비가 완료된 제2차 전체대회 이후 1947년은 제대로 된 ‘창작의 시기’라 하였다.<sup>42)</sup> 『웅항』 필화 사건으로 조직의 중앙집권화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 문학예술 본연의 임무인 창작 중시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했다. 이러한 요구를 결정적으로 마련한 것은 제1차 확대상임위원회(1947.1.28)이었다. 결정서를 일부 보면 다음과 같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 상임위원회는 산하 동맹원에게 다음과 같은 과업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첫째로, 북조선 문학예술가들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우리들의 모든 참을 수 없는 결점을 급속히 극복하고 참으로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예술의 중요한 역할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고상한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충실한 창작을 허다히 내놓음으로 추진시켜나갔던 것이니 각 작가의 앞에는 어서 조선 인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로, 북조선 문학자·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어있는 ‘책상 위의 사무’에 종사하는 경향을 급속히 극복하고 전 력량을 창작활동에 집중시킬 것이다. 셋째로, 전 창작가들은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이 위대한 시대에 가장 적응한 적극적인 예술적 주제를 찾아 그것을 원만히 묘사키 위하여 공장 농촌 광산 어촌에 깊이 들어갈 것이다.”<sup>43)</sup>

이때부터 북문예총은 이전의 행사 편중주의를 극복하고 예술적 창조사업

41) 민병균, 「재녕강반에서 - 토지개혁 1주년을 맞이하며」, 『로동신문』 1947.3.5. 당 정책을 선전하는 ‘행사시’로 보인다.

42) 안함광(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 「북조선문학예술총 사업의 회고와 전망」, 『로동신문』 1947.8.7.

43) 윗글에서 재인용.

과 대중화문제를 보다 절박하게 자기 과업으로 삼게 되었다. 많은 작가가 과한 사무 업무에서 해방되었으며, 완전히 '사무'에서 해방되지 못해도 문학예술 본연의 창작 편의가 주어졌다. 1947년 3월 시점에서 안함광이 평가한 작품은 리기영의 『개간』, 최명익의 『맥령』, 리태준의 『쏘련기행』 『농토』, 조기천의 『백두산』 등이다. 이들 중 『개간』(조선인민출판사, 1948)은 후일에 『수확』(조소문화협회, 1949)과 합쳐진 『땅』으로 개작되어 토지개혁을 다룬 문학사적 대표작이 되었다. 하지만 『쏘련기행』 『농토』는 이태준의 숙청으로 북한의 문학사 정전에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작가들의 현지 파견 사업도 이전처럼 조직 중앙의 행정명령식 조치보다 인민과 직접 만나 '창작의 산 재료를 얻는' 기회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가령 지방으로 파견되었던 명망가인 김사랑, 송영, 최명익의 긍정적 현지체험 소감이 널리 공유되었다.<sup>44)</sup>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예술인들이 생산 현장에 파견되어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독려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sup>45)</sup> 다만 신문기사가 작가 예술인들의 생산현장으로의 현지 파견 후 노동 체험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쓰고 성과를 과대 선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 문단 중진의 1차 현지파견은 그야말로 1회용 보여주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인민위원회 선전부의 결정에 의하여 2차로 작가 예술가들이 여럿 파견되었다. 1947년 5월 6일 환송회에 이어 7일, 흥남 등지의 광산과 공장에 작가 11명과 화가 6명이 내려갔다. 더욱이 사나흘에서 열흘 정도 짧은 일정 동안 현지 취재 수준으로 파견되었던 김사랑, 송영, 최명익 등 명망가의 전례와 달리 3,4개월 이상 현장에 체류하면서 직접적 노동 체험과 기술 습득을 통해 보다 사실적인 작품을 만들도록 조치되었다.<sup>46)</sup> 이들의 이름이 기사에 없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의 현지 파견은 문예총 차원의 자발적인 현장 취재용 파견이 아니라 인민위원회 선전부의 결정에 의한 반강제적 하방에

44) 「작가 파견」, 『로동신문』 1947.3.21.

45) 「인민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 작가와 화가들 공장 광산 농장에 파견」, 『로동신문』 1947.4.3.

46) 「문학예술총에서 제2차로 지방에 작가 파견」, 『로동신문』 1947.5.8.

가까웠다. 당시로선 현지 파견이 창작에 도움을 주기보다 처벌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한편, 북문예총은 조직 구성상 치명적인 문제도 있다. 3천 5백명에 달하는 북문예총 맹원과 씨클원까지 만여 명에 가까운 구성원 사이의 수준차가 컸던 것이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예술동맹은 중앙위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방만해진 조직을 역할 분담하는 구체안을 냈다. 즉 조직원을 기성 중견 예술가와 신진으로 나누어 기성 중견 예술가는 문화 사업에 주력하고 신진 예술가는 직장 농촌에서의 군중문화운동을 추진하게 하였다.<sup>47)</sup>

전문성이 있는 중견과 아마추어 수준인 신인 간의 격차가 심한 것은 외형적 세 과시에만 몰두해서 공연 성과를 부풀렸던 공연단체가 더 문제였다. 한 때 100개 이상 극단이 난립했던 연극동맹에서는 맹원의 재심사를 단행하였다. 연극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력 있는 극단만 북조선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존속시키고 나머지 극단은 해체하여 직장 소속의 군중문화사업으로 배속시키는 식으로 교통정리하였다.

미술동맹도 실력 있는 미술가만 소속시키는 원칙에 의하여 상업 미술가는 동맹원에서 제외하여 별개의 직장 미술부에 배치하였다. 음악동맹과 기타 동맹도 같은 원칙에 의하여 맹원 자격을 재심사하여 전업 예술가와 직장 소속 비전업 예술인을 분리해서 관리토록 하였다. 1946년에 처음 문예조직을 결성할 당시 남한과 비교할 때 전체 작가 예술가 규모의 절대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1년이 지나서야 확인한 것이다. 조직 출범시 급격하게 세를 불리려고 무리하게 비전문 작가와 비전업 예술인까지 문예 조직 구성원으로 다수 편입했던 무리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셈이다.

북문예총을 전문 전업 작가, 예술가 중심의 조직으로 축소 개편한 데는 안함광의 기획과 실행이 뒷받침되었다. 1946년 7월의 조직 개편 이후 당문학론 원칙 아래 무리하게 세 확장에 몰두했던 리찬 서기장의 후임으로 1947년 4월 문단권력을 다시 찾아온 안함광 서기장의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었다.

47) 「인민경제계획 완수 적극 추진-문예총 조직과 사업을 일층 쇄신 강화코 정진」, 『로동신문』 1947. 4. 20.

‘민족문학예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간부를 양성하고 각종 강습회, 강연회, 연구회를 정기화하였다. 평양에만 집중된 작가 예술가를 지방으로 파견, 배치하였다. 중앙 작가의 지방 파견을 통해 지방과 중앙의 교류, 생산현장의 근로인민과 작가의 교류, 출판 활동을 강화하자고 제언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전까지 중앙위원회 중심의 단일대오 결의기관이던 문예총 조직을 상대적으로 구심력을 약화시킨 협의체로 고치고 예술장르별 동맹을 결의기관으로 격상시켜 개별 조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신 북문예총 중앙위원회에 부속 출판사인 문화전선사를 세워 안함광 서기장이 주필을 겸직하였다.<sup>48)</sup> 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는 문학예술사업의 검열 총화를 통해 문예운동이 대중 속에 침투해 신진을 발굴 육성하는 대신 ‘기성 작가 중심의 문단 본위적 경향’으로 회귀한 것을 두고 6개항에 걸쳐 조목조목 비판하였다.<sup>49)</sup> 당은 문화인부 부부장 류문화를 파견하여 문학예술운동의 근본적 개조를 목적으로 한 북조선문학예술인대회를 소집할 것 등 11개조항의 개혁을 요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1948년 말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1948년에 들어서자 북문예총은 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1948.2.27.-30)를 경축하고자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문학예술 창조 돌격기간’으로 정하였다. 3월 25일 전당대회를 경축하는 미술전람회에서 민주건설의 면모와 김일성의 투쟁을 150점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사진 전람회와 기록영화「문화건설」상연, 조기천 서사시「백두산」을 각색한 연극〈백두산〉공연도 이어졌다.<sup>50)</sup>

1948년의 문학운동 중 특기할 사건은 김조규, 민병균 등 북문예총을 대표하는 중견 시인이 4월에 열린 ‘남북연석회의’<sup>51)</sup>에 참여한 정당 사회단체 대

48) 「문예총 직속 문화전선사 새로이 설치」, 『로동신문』 1947.4.25. 책임주필은 문예총 서기장 안함광이 겸하였다.

49)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사업(주로 문학분야) 검열 총화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43차 회의 결정서 1947년 9월 16일)」, 『결정집(1946.9-1948.3)』,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1948, 285-291쪽. 『북조선실록』 14권, 684-688쪽 재인용.

50) 「북조선 문학예술인, 문학예술 창조 돌격」, 『로동신문』 1948.3.26.

51) 1948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의 정치 지도자의 회담으로, ‘남북협상’,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라고도 한다. 이승만의 38선 이남 단독정부 선거 강행을 저지하려는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홍명희 등이

표자들을 격려하는 시를 발표한 것이다. 「남북연석회의 대표자에게 북조선 문학예술가 공동 명의로 올리는 시」를 김조규 시인이 낭독하였고, 민병균 시인은 남한 시인의 심정을 가탁하여 「북조선을 떠나며 - 어느 남조선 시인들이 일제히 부른 노래」를 로동신문에 게재하였다.<sup>52)</sup> 두 시편도 문제적이지만, 미디어 독법으로 신문지면 전체를 분석하면, 남북연석회의 개최에 대한 남북의 문학예술인과 학자들의 의견이 나란히 배치되어 통일을 기한 것이 인상적이다.<sup>53)</sup> 「문학자 예술가 학자들의 절규」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7일 북조선통신) 3월 31일부 『독립신보』를 인용하여, 이남의 문학자 예술가 학자들이 4월 14일에 평양에서 열리는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절대 지지하며 그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문학가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사전에 철저히 이북 중심으로 기울어진 남북협상은 결렬되었고 시인들의 노력이나 이남 지식인들의 지지의사 표명도 무력해서 문예운동사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 2) 북문예총 제3차 대회(1949. 2. 27)

1949년이 되자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3차 중앙대회가 열렸다. 1947, 8년의 조직 개편 이후 북문예총 지도부는 문예운동이 이전에 저지른 평양 중심의 중앙에 편중된 사업방식을 시정하고 지방조직, 하위 분과와의 긴밀한 일원체계를 확립하였다.<sup>54)</sup> 안함광의 제안대로, 문학예술인들이 대중과 유기적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문예총 조직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 집단으로 개편하였다. 예술적 기량도 부족한 비전문 아마추어까지 맹원으로 받아들여 한때 3천5백 명에 이르렀던 전체 맹원 숫자도 1948년 말 기준으로 1,026명까지 줄었다.<sup>55)</sup>

---

만났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52) 민병균, 「북조선을 떠나며 - 어느 남조선 시인들이 일제히 부른 노래」, 『로동신문』 1948. 4. 25.

53) 「문학자 예술가 학자들의 절규」, 『로동신문』 1948. 4. 25. 시인 정지용, 성균관대학 총장 김창숙, 화가 리인성, 고전문학가 리병기, 민속학자 송석하 등 지지자의 면모가 대난하다.

54) 「제3차 중앙대회를 앞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로동신문』 1949. 1. 12.

조직론의 원칙으로 볼 때 문예단체 결성 초기에 세를 늘이려고 비전문 아 마추어를 무리하게 문예조직에 편입시켰던 리찬 전 서기장의 오류를 시정 한 것은 올바른 방향 결정이라고 평가된다. 문제는 제대로 된 예술 인력의 충원이다. 대안이라 할 신인 예술인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였다. 신인 육성을 위한 맹원의 씨를 지도와 강연, 생산현장으로의 파견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김우철이 평양녀자고급중학교에서 시를 강의했고 한설야는 흥남인민 공장 문학씨클을 현지 지도하였다. 현지 파견사업도 1949년 1월까지 지속 되었다. 리태준은 평북 묘향산 부근 농장, 최명익은 평남 안주군 농장, 김사량은 황해제철소, 윤세중은 평양화학공장, 황건은 아오지탄광, 박웅걸은 본 궁화학공장, 한봉식은 삼신탄광에 파견되었다.<sup>56)</sup> 기타 많은 작가들이 지방 현지에 파견되어 생생한 생산 현실 속에서 작품 소재를 취재한 후 창작작업을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26일, 북조선문학동맹 등 북문예총 산하 각 예술장르별 동맹의 제2차 중앙대회가 열렸다. 이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제3차 전체 대회가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평양시 모란봉극장에서 개최되었다.<sup>57)</sup> 대회에는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사진, 무용, 영화 등 7개 예술장르별 동맹에서 135명의 대표와 방청객이 참가하였다.

무엇보다 이채를 띤 것은 ‘남조선 문학예술인 대표’라는 직함으로 김남천이 대회를 축하한 것이다.<sup>58)</sup> 그는 ‘공화국 남반부의 진보적 문학예술인’을 대표하여 3차 대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보고한 이남의 문학예술 현실은 암담하였다. 이남의 이승만 정권 하에서 애국적인 시인과 진실한 작가는 붓대를 빼앗겼으며, 연극인 음악인 미술가 무용가 등 모든 애국적 예술가들은 자기의 예술을 박탈당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갖은 테러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과 활약할 무대를 다시 찾기 위하여 저항 중이라고 하

55) 한설야(위원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3차 전체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요지)」, 『민주조선』 1949.3.3.

56) 「제3차 중앙대회를 앞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로동신문』 1949.1.12.

57) 「문예총 3차 대회 개막」, 『로동신문』 1949.3.1.

58) 김남천, 「축사(요지)」, 『로동신문』 1949.3.1.

였다. “감옥에서 지하에서 그리고 유격대에서 남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싸우고 있”는 이남의 우리들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그에 집결된 문학가 예술가들이 거대한 창작적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1949년 당시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 이남의 좌파 문예인들이 이북과의 소통을 넘어선 통합을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남북 사이에 상호 동등한 지위의 통합이 아니라 이남 세력의 이북으로의 편입 귀속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전 포석이 유효해서인지 6.25전쟁 당시 1951년 3월에 남북 문예총의 통합이 이루어졌다.<sup>59)</sup>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제3차 대회는 안함광의 사회로 사업 보고, 규약 개정, 선거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설야 위원장이 1946년 10월 제2차 전체 대회 이래 2년 반 동안의 사업을 보고하고, 평론가 한효, 시인 강승한, 평론가 정률, 무용가 최승희, 소설가 변희근, 작곡가 리면상, 극작가 신고송, 사진예술가 김진수, 연극인 안기석, 미술가 문학수, 평론가 한식 등이 토론하였다. 대회 제2일차는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리태준의 사회로 속회되어 전날 사업 보고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시인 홍순철, 소설가 현경준, 시인 리찬, 소설가 최인준, 음악가 안기옥, 화가 김주경, 시인 강기모, 소설가 김사랑, 사진예술가 리문빈, 소설가 리복명, 시인 김복원, 화가 김용하, 평론가 안함광 등이 발언하였다.<sup>60)</sup> 이어서 사업 보고와 결정서 채택이 진행되었다. 일부 규약이 개정되었는데, 종래의 영화동맹, 무용동맹이 영화위원회, 무용위원회로 격하되고, 문학동맹 내에 씨나리오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앙위원 선거를 통해 한설야 등 31명이 피선되고 부서가 재조직되었다.<sup>61)</sup> 중앙위원은 한설야, 리기영, 리태준, 홍순철, 리면상, 신고송, 김경준, 한효, 주인규, 고찬보, 정관철, 안기옥, 김승구, 박영신, 박세영, 민병균, 리문빈, 강승한, 문예봉, 안막, 리복명, 최인준, 정률, 최명익, 리찬,

59) 전시의 남북 통합 문예총의 결성과 활동 및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김성수, 「6.25전쟁기 북한 문예운동사 연구」, 533~543쪽 참조.

60) 「문예총 제3차 대회(제2일)」, 『로동신문』 1949.3.3.

61) 「문예총 중앙위원회 부서」, 『로동신문』 1949.3.3.

현경준, 한식, 안함광, 최승희, 안기석, 김사랑이다. 이들이 모인 제1차 중앙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보직과 부서, 상무위원, 검열위원을 선출하였다: 위원장 한설야, 부위원장 리태준, 서기장 민병균, 상무위원 - 한설야, 리태준, 민병균, 리기영, 홍순철, 리면상, 정관철, 고찬보, 안함광, 신고, 송 김경준, 검열위원 - 최명익, 한효, 리찬, 김사랑, 리문빈.

제3차 대회 of 사업 보고 중 특기할 것은 1948년의 성과작이다. 문학작품은 리기영의 『땅』, 리태준의 『농토』, 조기천의 『백두산』, 『우리의 길』, 김태진의 『리순신 장군』, 백문환의 『성장』, 연극 공연은 국립극장의 <백두산> <그녀자의 길> <부레트 중위> <항쟁의 노래>, 시립예술극장의 <리순신 장군> <로씨야 사람들>, 국립예술극장의 가극 <온달>이 평가받았다.<sup>62)</sup>

그러나 제3차 대회 of 사업 보고 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문학예술운동의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자기비판한 사실이다. 가령 시 소설 등 문학작품은 창작량도 적고 질적으로 부족하며 미숙한 데다 조잡하고 저속한 작품이 허다하였다. 연극은 새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지 못한 채 낡은 신파조 수법을 탈피하지 못했다. 사극과 고전문만 치우친 데다 원작 하나를 여러 종류로 각색하여 동일 극장에서 반복 상연하는 폐해도 있었다. 국립영화촬영소는 아직 한편의 극영화도 만들지 못하였다. 무용은 민족무용 전통을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현실을 담지 못한 공허한 율동을 재현하거나 새것을 빙자하여 비속한 율동을 표현하였다. 음악, 미술, 사진 분야 역시 예술지상주의적 경향이 남아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예술장르별 대표의 신랄한 자기비판에 이어서 문예총 지도부도 조직론의 차원에서 매우 강한 자기비판을 하였다: 북문예총 중앙위원회와 서기국은 하부조직과 긴밀하게 연계하지 못한 채 고립적 분산적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였다. 신인을 제대로 지도하여 동맹에 가입시키는 조직적 지도를 못했다. 문학예술인을 사상적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정치교양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평론과 연구를 옹기 못했다. 출판사업도 소홀히 해 기관지 『문화전

62)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사업 총결에 대한 제3차 대회 of 결정서」, 『로동신문』 1949. 3. 3.

선』과 『문학예술』의 간행을 정기적으로 못했다. 그나마 간행된 책자조차 편집도 장정 제본 인쇄가 빈약하며 디자인이 조잡하다 등등.<sup>63)</sup>

이는 『응향』 필화 사건(1946. 12. 24.) 당시 평양의 북문예총 지도부가 원산에서 8월에 간행된 시집을 사건이 터진 12월까지 몰랐다고 발뺌할 때와는 다르다. 지방 간행물을 평양에서 받아보지 못했기에 사전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면피용 해명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진심 담긴 자기반성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문예총 지도부는 3차 대회 명의로 이상과 같은 과오와 결점을 자기비판하면서 문학예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10개 항의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의 대중화, 문예총 사업의 결점 비판과 극복, 문학예술분야에서의 2개년 계획<sup>64)</sup> 완수, 고상한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의 체득, 비평활동의 강화, 현지 파견과 검열사업 강화<sup>65)</sup>, 신인 육성과 군중문화사업 강화, 작품의 출판사업 강화, 작가기금제도, 반동과의 투쟁과 소련과의 사상적 유대.

문예총 지도부는 결정서 결론에서 1949년 시점의 문학예술운동 전반적인 방향을 ‘문예 대중화’로 규정하고, “민족문학예술의 기본 립장은 노동자 농민 기타 근로인민의 계급적 민족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둔”다고 하였다. 창작사업의 소재는 노동자 농민 기타 근로인민의 생활 현실을 그리며, 주제는 인민적 민주주의 노선을 골간으로 하여 조·쏘 친선, 민주 건설, 구국투쟁 형상 재현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63) 제2차 대회의 사업 보고 중의 이렇게 진심이 담긴 매서운 자기비판은 북한의 역대 문학사에서 다시 보기 어렵다.

64)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1949년~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목표 수치처럼 창작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5) 제3차 대회 직후 현지파견된 문학가는 다음과 같다. 리태준이 남포에서 ‘문학의 밤’을 주재했고, 희곡 작가 김성집이 승호리세멘트공장, 시인 양명문이 황해제철소, 소설가 윤시철이 수풍발전소, 시인 박경수가 안변 농촌에 파견되어 현지 체험과 신인 육성에 참가하였다. 「문예총 제3차 대회 결정을 받든 문학예술인들의 활동」, 『로동신문』 1949. 4. 3.

### 3) 북문예총의 창작방법과 대중화론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3차 대회와 보고 중 주목할 대목 중 하나는 북문예총의 공식 미학을 ‘고상한 사실주의’ 창작방법으로 규정한 사실이다. 대회 보고서는 해방기 문학예술의 성과와 한계를 7개 장르별로 정리하고 조직론 오류를 자기비판했지만 핵심은 문예대중화와 창작방법론이었다.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당문학론 원칙에 따라 조직 개편을 아무리 해도 문예 창작의 특성상 미학적 성취가 없으면 안 된다. 사회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예술의 특수성을 몰각한 채 민주개혁의 선전수단으로만 문학예술을 대하면 무리수가 빚어지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당시 북한 문예운동에서 새롭게 떠오른 주요 쟁점이 바로 창작방법이었다.

문학예술이 급변하는 변혁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낙후성의 원인은 당은 사상성 미약으로 파악한 듯하다, 하지만 한설야, 안함광 등 북문예총 지도부는 카프 이래 리얼리즘 창작방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맑스주의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굳게 무장하여 고상한 리얼리즘을 자기의 창작방법으로 진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리얼리즘을 리해함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량만주의를 량분성의 것으로 보아 그것을 종합하며 접목한 것이 고상한 사실주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조아 학자들처럼 예술 내부에 불변적으로 유재하며 시간과 공간의 밖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국의 객관적 현실을 기초로 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 우리 현실의 본질적 진행이 그런 것처럼 현실을 더 높고 더 좋은 상태로 개변하기 위한 창작방법이며 따라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며 발전하는 본질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반드시 혁명적 량만주의를 그 구성부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sup>66)</sup>

한설야, 안함광 등 부문예총 지도부가 일컫는 창작방법은 ‘고상한 리얼리즘/사실주의’였다. 민주개혁의 현실을 과학적 정확성으로 포착하고 아울러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혁명적 창조의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 자체가 혁명적 낭만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상한 사실주의는 반드시 혁명적 낭만주의를 그 중요 구성부분으로 담아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의 좌우 논쟁기에 카프 및 좌파 문예인들이 비판했던 부르주아미학사상은 철저하게 비판, 배척하였다. 그래서 “창작방법에 있어서 자연주의, 관조적 내성적 심리주의 등의 일체의 형식주의를 버리고 고상한 사실주의로써 무장 관철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못을 박았다.<sup>67)</sup>

1949년 당시 부문예총 3차 대회 공식 보고문건을 보면, 북한문학이 처음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삼았다는 훗날의 주체 문학사 서술과 상치되는 반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상한 레알리즘’ 담론 전까지 사회주의 리얼리즘 담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시기 창작방법으로 규정된 당시 공식문건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1950년 6월에 나온 민주조선 사설 「2개년 인민경제 수행에 있어서의 문학가 예술가들의 임무」라는 문건에서도 여전히 ‘고상한 레알리즘’ 창작방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데서도 재확인된다. 사설에 따르면 “고상한 레알리즘은 오늘날 우수한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상의 담보로 된다.”고 한다. 이는 1949년 3차 대회 이후 당의 2개년 인민경제에 발맞춘 문예 창작 2개년 계획에서 나온 말이다. 즉, 문학가 예술가들은 문학예술의 인민성과 견실성을 쫓먹는 형식주의와 투쟁하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노동을 존중하는 긍정적 사상을 선전하는 ‘고상한 레알리즘’ 창작방법을 체득하라고 하였다. ‘고상한 레알리즘’의 미학적 특징은 일상의 여러 잡다한 현상 밑에서 본질을 파악하며 현실을 부단히 발전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며 약속된 미래의 이상사회를 전망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sup>68)</sup> 현실을 발전하는 과정으로

66)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사업 총결에 대한 제3차 대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1949.3.3.

67) 위의 글.

68) 「2개년 인민경제 수행에 있어서의 문학가 예술가들의 임무」(사설), 『민주조선』 1950.6.25.

그런 것은 리얼리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혁명적 낭만주의를 지칭한다고 풀이된다.

하지만 고상한 리얼리즘 창작방법이라는 미학적 원칙과 무관하게 당은 문학예술을 정책 선전 도구로 활용하였다. 북문예총은 3차 대회 이후 당 정책을 선전하는 문학예술의 정치실용주의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문예 창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 독려 등 정치 캠페인에 동원되었다. 더욱이 『응향』 사건과 현지파견 사업을 통해 노동 체험을 했던 대다수 문학예술인들은 당 정책에 순응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문학 비예술 정치 선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1949년 3월 중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한설야와 조소문화협회 위원장 리기영 명의로 다음 달에 파리에서 열릴 평화옹호세계대회를 소집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서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설야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소련을 비롯한 반파쇼 반제국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미국 영국 등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의 야망을 반대하는 진정한 평화 애호'를 주장하였다.<sup>69)</sup>

북문예총 제8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시,군,도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3월 30일)에 대한 협조방침을 결정한 후, 문예창작과 예술선동으로 인민 대중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였다.<sup>70)</sup> 정치 캠페인뿐만 아니라 아예 정치선전물의 기획 창작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북문예총 산하 문학동맹원들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선거의 정치적 의의와 감격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한꺼번에 창작하였다. 시인 김우철의 「선거선전의 밤」, 박남수의 「립후보자에게」, 한명천의 「맹세」, 양정섭의 「모두 다 선거어로」 등의 단시 작품을 신문지상 또는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희곡작가들은 선거를 테마로 한 단막극, 촌극 대본을 써서 전국을 순회하는 이동예술대, 이동연예대에 제공하였다. 한병각 작 「농촌행」, 오정삼 작 「3월」, 박태영 작 「동갑」 등이 곳곳에서 상연되었다. 미술동맹원들은 포스터, 만화, 도표 등의 각종 직관물 선전 홍보물을 제작하

69) 한설야, 「진보적 문학가 예술가들은 대회 소집을 절대 지지한다」, 『로동신문』 1949.3.17.

70)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를 위하여 영예의 이 한 표를 민전 립후보자에게」, 『로동신문』 1949.3.30.

여 전국 선거선전실에 배포하였다.

다만, 북문예총 3차 대회에서 제시된 문학예술운동의 방향이 외교나 선거 같은 그때그때의 현실 정치에 편의주의적으로 동원되는 데 그치면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차 대회 결정 10개 항의 세부지침을 이론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창작 성과로 제시해야 비로소 현실적 위력을 갖출 터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예술의 대중화, 사실주의 창작방법, 비평 강화, 현지 파견과 검열 강화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북문예총의 새로운 이데올로그 홍순철 시인의 평문이 주목된다.

홍순철은 「문학예술운동의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하여」 제하 장문의 평론에서 해방기 문예운동이 민주주의적 사상의 기초 위에서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사실주의 창작방법으로 잘 묘사했다고 하였다.<sup>71)</sup> 그가 해방기 성과작으로 꼽은 것은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 리태준의 『농토』, 리기영의 『땅』, 리북명의 『로동일가』 등의 장편소설, 김태진 작 『리순신 장군』, 백문환 작 『성장』, 박령보 작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희곡이었다.

홍순철은 작가 예술가들이 ‘수동적 관찰주의, 주관주의’를 버리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현실을 인식하라고 하였다. 문학예술이 현실과 유리되지 않으려면 사상성 미약과 표현기술 미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성 작가에게 남아 있는 ‘시민적인 유한성’을 지적하였다. 개인적 비애나 내면 심정, 인정세대를 피상적으로 그려 근로인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적인 유한성’이란 명명법이 주목된다. 이는 현실을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보지 못하고 세부 묘사에만 몰두하는 자연주의, 기록주의, 형식주의 수법 같은 ‘부르주아 미학사상의 한계’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홍순철은 기성 작가의 ‘시민적 유한성’을 비판하고 다음 5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학예술의 대중화. 작가 예술인은 인민대중을 위한 창작을 내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작품 창작을 직접 하도록 방조해야

71) 홍순철, 「문학예술운동의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6호, 37~49쪽.

진정한 대중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문학예술의 교육 기능 강화. 문학예술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기계적 복사가 아니라 현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사건의 뒤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선봉에서 길을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학가 예술인의 비판과 자기비판.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반성을 생활화하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특유의 공개적 자아비판을 받아들이고 반성을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 말란 뜻으로 해석된다. 넷째, 비평활동의 강화. 비평의 위상을 당 사업의 검열처럼 규정하고, “한 개의 탐조등으로서 작가의 진로를 밝히”라 하였다.<sup>72)</sup> 다섯째, 민족문화의 계승문제. 낙후된 민족문학예술을 부흥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련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전통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차 대회 이후의 북문예총 문예정책 방향은 홍순철이 제공한 상기 논리와 함께, 각종 창작 성과와 현지파견이라는 후속조치로 구체화되었다. 가령 소설가 변희근은 단편「경쟁」에서 해방 후 발전의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사명을 인식하게 된 흥남인민공장 노동자의 성격 발전을 묘사하는 성과를 올렸다.<sup>73)</sup> 리태준은 단편「호랑이 할머니」(『농민소설집』 1집)에서 스므담 마을의 주인공 노파가 문맹에서 벗어나려는 해방후 새로운 사회 건설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진보적 민주주의사상을 고상한 예술로 그렸다고 평가 받았다. 그의 작품은 발표 당시 고상한 사실주의를 구현한 소설로 높이 평가되었으나 훗날 부르주아미학사상을 지닌 자연주의의 작품으로 매도되었다.<sup>74)</sup>

72) 『로동신문』사설은 평론가들이 맑스레닌주의의 선진적 세계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민족문학유산을 발굴하여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며 낡은 유미주의적 경향과 자연주의적 요소, 기타 일체의 비애국적 문학조류와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문학 발전에 있어서의 평론가들의 역할」(사설), 『로동신문』 1949.4.12.

73) 「문예총 제3차 대회 결정을 받은 문학예술인들의 활동」, 『로동신문』 1949.4.3.

74) 박중선, 「대중을 집단주의로 교양시키자」, 『로동신문』 1949.08.20. 박중선은 『로동신문』 주필 기석복의 필명이다. 기석복은 1956년에 과거 자신이 1949년 평문에서 리태준의 ‘반동적 부르주아사상을 폭로 비판하지 못한 사상적 오류’를 범했다고 자기비판하였다. 기석복, 「로동신문 편집국 앞」, 『로동신문』 1956.3.19. 리태준의 1949년작 단편「호랑이 할머니」에서 촉발된 엄호석, 한설야 대 기석복, 정룡의 ‘부르주아사상미학 비판 논쟁’(1956) 논의는 후속 논의를 기약한다.

#### 4) 북문예총의 전쟁 직전(1950) 남북 연대론

1950년에 들어서서도 당문학론에 입각한 북문예총의 조직활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당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가폰 기능이 6.25전쟁 직전(1950.6)까지 지속되었다. 전쟁 직전이라서 그런지 특히 눈에 띄는 문예운동적 키워드는 ‘통일’ 명분의 남조선 문예운동과의 연대였다. 예를 들어 1948년에 발표된 조기천의 서정시「항쟁의 려수」<sup>75)</sup>가 다시 소환되었다. 작품은 우리가 ‘여순 군인 반란 사건’으로 통칭하는 ‘려수 순천 군인 폭동’을 남조선 인민항쟁의 전형으로 묘사한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그의 앞잡이인 이승만 정권의 야망을 폭로하며, 조국의 완전 통일과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생한 투쟁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고 고평되었다.<sup>76)</sup>

1950년 상반기 북문예총의 노선은 조국의 완전 통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당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실제 내용은 문예분야의 남북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남조선 문예운동과의 연대는 1949년 말의 김일성 교시,「현 시기 문학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1949.12.22.)」<sup>77)</sup>에서 촉발되었다. 그는 1949-50년의 2개년 인민경제 수행에 문학가 예술가도 참여하는 한편,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반부 인민의 구국투쟁을 작품화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설야는 문예총 제3차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2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문학예술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도를 찾기 위한 각 예술장르별 동맹의 당면 과업을 보고하였다.<sup>78)</sup> 중앙위원회는 먼저 12월 29일 김일성의 교시를 실행하기 위한 열성자대회를 열었다.<sup>79)</sup> 대회에서 허정숙 문화선전상은 “조국의 민주 통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투

75) 조기천, 「항쟁의 려수」, 『로동신문』 1948. 3. 18.

76) 「문예총 제3차 대회 결정을 받은 문학예술인들의 활동」, 『로동신문』 1949. 4. 3.

77) 김일성, 「현 시기 문학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1949. 12. 22.)」, 『김일성저작집』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332~343쪽.

78) 「문학예술총동맹 제3차 중앙위원회」, 『로동신문』 1949. 12. 24.

79) 「김일성 수상의 훈시 받드는 문학예술인 열성자대회 진행」, 『로동신문』 1950. 1. 3.

쟁의 생생한 실모를 작품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북문예총 지도부는 당의 요구에 호응하여 남조선문화단체총련맹 맹원 등 이남의 ‘애국적 문화인들’에게 보내는 조국전선의 호소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채택하였다.<sup>80)</sup> 이어서 한식, 송영, 강양양, 천세봉 등 함흥지구 문학예술인들도 남조선의 애국적 문화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지면에 발표하였다.<sup>81)</sup> 이런 식으로 조국통일의 명분으로 남조선의 진보적 문예운동세력과의 연대를 표방한 것은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계속 이어졌다.<sup>82)</sup> 심지어 한설야는 전쟁 발발 전날에 신문에 발표한 정론에서 통일을 위해서 남조선의 양심적인 애국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와 이승만 괴뢰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 북조선의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기까지 하였다.<sup>83)</sup>

6.25전쟁 직전인 1950년 전반기 북문예총의 창작방향과 조직활동의 핵심이 ‘통일을 내건 남조선 문예운동과의 연대’라고 할 때 눈에 띄는 작품이 립화의 시 「영웅전 - 김산해 강홍렬 동무에게」(1950. 5)이다.<sup>84)</sup>

살아서 만날 / 어느날도 기약이 어려운 / 이 밤을 어떻게 잠들어 새울 것이냐 //  
 동무여! / 이렇게 형제처럼 나라이 누워 / 진정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 첫 여름  
 밤이 깊어가면 /  
 망국 선거장에 화약을 지를 5월 10일 /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 죽어도 좋은 아  
 침이 온다//  
 아아 우리 오직 단 하나를 념원하여 / 붉은피 뿌릴 조국의 땅이여 / 잘 있으라  
 그 위에 영원할 조국의 / 하늘이여 / 동무여! //  
 창문을 열자 / 이렇게 황홀한 청춘의 / 마지막 밤을 어떻게 잠들어 새울 것이냐  
 (전문)

80) 「남조선문련 전체 맹원들과 전체 애국적 문화인들께 고향」, 『로동신문』 1950. 3. 18.

81) 함흥지구 문학예술인들, 「남반부 전체 애국적 문화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로동신문』 1950. 4. 15.

82) 「2개년 인민경제 수행에 있어서의 문학가 예술가들의 임무」(사설), 『민주조선』 1950. 6. 25.

83) 한설야,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이여 당신들은 누구의 편에 서려 하는가?」, 『로동신문』 1950. 6. 24.

84) 립화, 「영웅전 - 김산해 강홍렬 동무에게」(시), 『민주청년』 1950. 5. 10.

이 작품은 1948년 5월 10일 단행된 남한의 단독선거 반대투쟁으로 죽은 김산해, 강홍렬을 영웅으로 호명한다. 그들 서정적 주인공의 목숨을 건 투쟁 전날의 유서를 상상하여 시로 대신 쓴 형국이다. 그래서일까, ‘망국 선거장에 화약을 지를 5월 10일,’ ‘붉은피 뿌릴 조국의 땅’ 같은 직설적 화법이 가득한 구호시라서, 임화 시치고는 서정적 환기나 내적 응축이 부족하다. 급히 쓴 정치 선전물로 추정된다. 시에 딸린 해설에 따르면, 김산해, 강홍렬은 2년 전인 1948년 5월 10일 ‘단선 분쇄 투쟁’ 당일에 서울시 광희동 투표소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파출소를 습격하여 수십 명의 경찰과 싸우다 죽었다고 한다. 2년 전 남한에서 일어난 철지난 사건을 소환하여 그들이 ‘청년영웅’이라 호명하고, “이 시는 그 전날 밤 두 동무가 나라니 자며 조국에 목숨을 바칠 비장한 결의를 노래한 것이다.”란 해설까지 붙였다. 이는 6.25전쟁 직전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인 통일을 명분으로 한 ‘남북연대’ 제의의 문학적 선전물로 풀이된다.

## 5. 마무리 : 해방기(1945~50) 북한 문예운동사의 연구방향

지금까지 북한 초기 문예단체의 조직활동과 핵심 역할을 한 문예인, 문예운동사의 주요 쟁점을 『정로』, 『로동신문』, 『문화전선』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차 북조선예술가대회(1946.3.25.)와 북조선예술총련맹(북예총, 예총) 결성, 제2차 북조선문학예술인 전체대회(1946.10.13.)를 통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북문예총)으로의 확대 개편, 제3차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체대회(1949.2.27.), 제3차 중앙위원회(1949.12.24.)와 남조선 문학예술인과의 연대 제안(1950.6)까지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문예조직과 창작성과를 신문 잡지의 미디어콘텐츠 중심으로 정리하되, 북한 초창기 문예운동사를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공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의 첫발을 댄 셈이다.

앞으로 평양의 북문예총 주류인 한설야, 리기영, 김사량, 안함광, 조기천

등의 창작과 비문학 정론, 그리고 서울의 조선문학가동맹 출신으로 평양 문단에 뒤늦게 합류한 월북 작가 립화, 리태준, 김남천 등의 시, 소설, 비평, 정론과 6.25전쟁기 종군문학 자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신문, 잡지 ‘미디어-문학장(media- literature field)’ 분석으로 6.25전쟁과 전후복구기(1950-56) 문학운동사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나아가 북한 문예운동을 해방기(1946~50)의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쟁기(1951~53)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후 복구기(1953~56)의 조선작가동맹,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1956~58)의 2차 조선작가대회, 천리마운동기(1959~67)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재결성까지 보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김일성전집』, 『김정일전집』, 『조선전사』, 『조선문학사』로 거대한 성채를 이룬 북한판 문학사 정전을 해체하고 『로동신문』, 『문학신문』, 기타 문예지를 통한 탈정전 실사구시 문학사를 겨냥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한 실사구시적 탈정전 문학사 서술을 후속 과제로 삼는다.

## ■ 참고문헌

### 1. 자료

『정로』, 『로동신문』, 『민주조선』, 『민주청년』, 『근로자』, 『문화전선』, 『문학예술』, 『조선문학』, 『문학신문』, 『조선중앙년감』, 『김일성 저작집』  
김광운,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200권, 코리아데이터센터 편, 선인출판, 2018~2024.

### 2. 단행본

김선려 리근실 정명옥, 『조선문학사(11) 해방후편(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역락출판사, 2020.2.  
\_\_\_\_\_, 『북한문학비평사』, 역락출판사, 2022.5.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해방기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 역락, 2012.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경진, 2011.  
리동원, 『조선문학사』 3(1945-5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12.  
정병준 외, 『북한신문 연구 해제집 : 한국전쟁기 북한노획문서』, 선인출판사, 2021.  
정진석,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증보판), 소명출판사, 2020.

### 3. 논문

김성수, 「북한 『조선문학사』의 역사 - 탈정전 북한문학사 연구 서설」, 『민족문학사연구』 80, 민족문학사학회, 2022.12., 263~300쪽.  
\_\_\_\_\_, 「6.25전쟁기 북한 문예운동사 연구」, 『한국학연구』 7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4.5., 531-560쪽.  
\_\_\_\_\_,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역사적 변천(1946-53)」, 『통일정책연구』 33-1, 통일연구원, 2024.6., 209-236쪽.  
남원진, 「북조선예술총련맹의 탄생과 그 이면」, 『통일인문학』 100,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24.12, 273-314쪽.  
박창희, 「해방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체계와 군중문화사업(1945-1950)」, 성균관대 박사 논문, 2021.  
배개화,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대립과 그 원인, 1945~1953」, 『한국현대문학연구』 44, 한국현대문학회, 2014. 347-382쪽.  
오테호, 「〈'응향' 결정서〉를 둘러싼 해방기 문단의 인식론적 차이 연구」, 『어문논집』 46집, 중앙어문학회, 2011.11, 37~64쪽.  
유임하, 「북한 초기문학과 '소련'이라는 참조점 - 조소문화 교류, 즈다노비즘, 번역된 냉전논리」,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153-184쪽.  
이기우, 「북한의 통치기제로서 선전선동과 『로동신문』의 역할 : '체제유지'와 '권력세습' 과정에서의 기관성 분석」, 경기대 박사 논문, 2015.  
이상숙, 「『문화전선』을 통해 본 북한시학 형성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3호, 한국근대문학회, 2011.4. 253-283쪽.  
한호, 「고상한 리알리즘의 체득」, 『조선문학』 창간특대호, 1947.9., 279~286쪽.

#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Movement of Literature and Art in North Korea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f August 15

From the Federation of North Korean Arts (1946.3) to just before the Korean War (1950.6)

Kim, Seong-s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rganize the history of the literary and artistic movement, including the formation, reorganization, and literary activities of North Korea's first literary organization in the Liberation Period (1945~50). This is part of a study to empirically restore the history of socialist realism literature by decanonizing the 'The History of Joseon Literature' canon centered on the Juche History of Literature. Specifically, the 8.15 Liberation Period literary movement will be reorganized from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Arts Federation alliance (1946.3), the first nationwide literary organization in North Korea, to just before the Korean War (1950.6).

The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views such as *Jeongro*, *Rodong Sinmun*, and *Democratic Chosun*, as well as literature reviews such as "*The Cultural Front*" and media reading methods. The form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Arts Federation Alliance through the first North Korean Artist Congress (1946.3),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 through the second North Korean Literary Artist Congress (1946.10), and the third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

---

\* Professor of writing at University College, Sungkyunkwan University

(1949.2) and the proposal of solidarity with South Korean literature artists just before the Korean War (1950.6) are summarized.

The organization and creative achievements of literature and artists during this period are organized around the media content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but the history of the movement of literature and art is organized in chronological order and the main issues are analyzed. The results of discussions through the “media-literature fiel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ill also measure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literary movement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recovery period (1950-56).

**Key words** : North Korean literature, History of the Movement of Literature and Arts, media reading method, *Jeongro*, *Rodong Sinmun*, *Cultural Front*, North Korean Arts Federation Alliance,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